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음 8월 23일) 제21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천년의 빛'으로 하나가 되리라

도, 내일·8일 각각 전국체전 성화 안치·출발 행사 양대 체전 성공 기원... 퍼포먼스·봉송 주자 인계

전북도는 제99회 전국체전(10.12~10.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25~29)의 성화 안치 환영행사는 10월 3일에, 출발 환영행사는 10월 8일에 각각 도청광장 앞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체전 성화는 10월 3일 마산에서, 장애인체전 성화는 같은 날 익산 미륵사에서 채화되어 당일 동시에(오후 5시) 전북도청 앞광장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된 성화로에 안치하고 환영행사를 열게 된다.

안치된 성화는 5일간 도청에 보관하다 8일 오전 8시 50분에 출발식을 가진 후 14개 시군을 돌아 11일 익산에 안치되기까지 나흘간 99개 구간 990km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성화 안치 출발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의장, 김승환 교육감과 체육회 임직원 등 많은 체육계 인사와 도민이 참석, 전북도에 첫 여정을 시작하는 성화를 축하하고 15년 만에 개최되는 양대 체전의 성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3일 안치식 환영행사에서는 제의의식에 맞춰 제사장과 신녀들이 전달한 성화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양대 체전 성화로에 접화하게 되고, 이어서 '천년의 빛으로 하나가 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도 천년의 빛으로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혀 모두가 하나 되고, 양대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염원하는 특별 퍼포먼스가 펼쳐질

계획이다. 8일 출발 환영행사는 대회 성공 기원과 전북도의 역동성을 복층과 경고 무로 표현한 축하공연이 펼쳐진 뒤 성화에서 점화된 성화를 도지사와 의장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로 구성된 첫 주자들에게 각각 인계하면 성화가 14개 시군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성화봉송에서 특색 있는 점은 체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동시봉송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체육인, 장애인·학생·어르신 등 750명의 주자로 구성, 이 중 장애인 주자는 40명, 다문화·소외계층 7명 등이 참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보이지 않는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마음을 하

나로 묶는 대통합 축제의 장을 연출하고자 했다고 이번 성화봉송의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도 운동육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번 10월 3일과 8일에 열리는 성화 안치식과 출발식은 15년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 되는 양대 체전의 서막을 알리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로 정도 천년의 빛과 도민의 성원을 듬뿍 담은 성화가 환하게 타올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하늘을 나는 농업용 드론

1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사장에서 열린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 방제, 예찰, 시비·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북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필승 결의를 다졌다. 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국체전을 11일 앞둔 이날 도청 대공원에서 '전북 선수단 결단식 및 필승 다짐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단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송성환 도의회 의장 등 도내 기관장을 비롯해 도 체육회 임원과 고문, 자문위원단, 경기단체장,

"전북의 명예·자존심 지키자"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필승 다짐... 종합 3위 목표

선수단, 익산 전국체전 서포터즈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전북 체육 위상을 높이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행사는 단기수여식을 시작으로 필승을 다짐하는 선수·지도자·서포터즈 대표 선서, 격려금 전달식, 전

북의 노래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각계각층의 성원을 담은 격려금 전달식이 눈길을 끌었다.

격려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화 사장, 전북체육동우회 유병용 수석 부회장, 세기메디칼 김문철 회장(전

북체육회 고문), 흥건 김광호 회장(전북체육회 부회장), 전북여성체육위원회 조소자 위원장, 성웅종합건설 박영자 대표, 피앤 정강선 대표이사 등이 전달했다.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에 전북 선수단은 단장에 송하진 지사, 총감독은 최원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맡는다.

종합 3위를 목표로 내건 전북 선수단은 총 1725명(선수 1315명, 임원 410명)이 47개 전 종목에 출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장은성 기자

社 告

제2회 전북 아리울 아버지 합창대회

일시: 2018년 10월 6일(토) 오후 2시
장소: 전북도청 대공연장

깊어가는 가을, '제2회 전북 아버지 합창대회'를 6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 ▲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 ▲ 후원: 전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
- ▲ 방송: 가요TV, 시니어TV
- ▲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063-288-9700)

"학생인권조례 기준에 따라야"

전북도내 초등 학교생활규정에 차별 금지 조항 있어

전북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교 생활규정에는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최근 공개한 초등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418개 초등학교 가운데 93%인 388개교에서 차별관련 금지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장·두발·양말·액세서리·화장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는 38개교(9%), 제한 규정이 없는 학교는 380개교(91%)로 확인됐다.

반면 중학교는 209곳 가운데 78곳(37%), 고등학교는 133곳 가운데 46곳(35%)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반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 부여를 학교생활규정

에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 59곳(28%), 고등학교 28곳(21%)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학교생활규정에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이므로 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인권조례에 준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항목 및 방향에 대한 학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정절차 10월 3일자 신문 읽는다."

2018 개막공연_ '소리 판타지(Sori Fantasy)'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이 펼치는 초대형 갈라 콘서트

판소리다섯바탕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보셔야 할 모던한 판소리 다섯바탕의 맛!
*김경호 <적벽가>, 김세미 <춘향가>, 박성희 <수궁가>, 장문희 <심청가>, 김수연 <강경아 <홍보가>

국악방송 공동기획 산조이밤

달빛 가득한 밤, 바람소리마저 숨죽인 기악 연주의 깊은 서정
*허운정(거문고), 이용규(대금), 이태백(아쟁, 칠아쟁, 장구), 김정만(장구)

광대의 노래 '춤의 시선(視線)'

대한민국 최고 명무들이 수놓는 가을밤의 나빌레라

The 17th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2018. 10.03. - 10.07

홈페이지 sorifestival.com
문의 1577-4052

주최 전라북도
주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